

자연과 사람의 꿈을 건설하는 진흥기업

건설 반세기 역사를 담은 ‘名家’를 짓는다



진흥기업은 2000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 경쟁 속에서 신 개념의 아파트 브랜드 ‘W-park’의 성공적인 론칭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아파트’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었다. 명실상부한 건설의 명가, 진흥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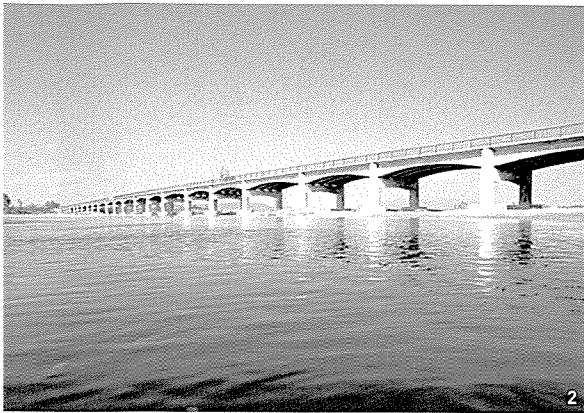
에디터 하유정

진흥기업의 기업 이념은 바로 ‘인간’이다. 수많은 업종을 망라해서 유독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생산품은 건축물이며, 이러한 건축물의 근본은 ‘인간 존중’이라는 인본 사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인간 존중’은 영리기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내부 고객 만족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는 데 핵심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내부적으로 임직원들 간에 상호 존중의 문화가 확립됐으며, 외부적으로는 ‘W-park 나눔의 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를 발족해 이웃에 대한 봉사과 사랑의 실천을 위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W-park’ 브랜드 론칭 성공적

1959년 창립된 진흥기업은 국내 건설산업의 선두주자로서 국가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1960~70년대에 괄목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등 중동 지역은 물론 런던, 뉴욕 등 해외 시장에 까지 진출해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더불어 한국 건설 기술의 우수성과 성실성, 근면성을 널리 알리는 선구자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 10대 종합 건설사로 선정되기도

1 분당 이매동의 진흥 아파트 2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발주한 낙단교는 1986년 완공되었다. 3 SH공사가 주관한 사업에 참여해서 지은 상암동의 아파트. 4 1990년도에 준공된 역삼동의 상록회관



했다. 1980년에는 철탑산업훈장 포상과 1982년 건설수출탑 등을 수상했고, 2005년에는 매출 3500억 원, 당기 순이익 200억 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2006년에는 매출 4500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진흥 'W-park' 브랜드의 성공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W-park' 분양 시 분양률 100%를 최단기간 달성하는 등 주택 사업에 있어 경쟁력 있는 주택 건설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W-park' 와 함께 주상복합 브랜드인 '진흥 마제스타워(Majestower)' 도 대한민국의 주거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전라북도 전주, 경기도 파주에 이어 경상남도 진주, 경기도 용인, 부산, 울산 등 전국 9개 지역 15개 사업지에 총 80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사업 통해 초인류 건설사 진입

진흥기업은 2002년을 재도약 원년의 해로 천명하고 매년 전년도에 매출액 갱신을 목표로 적극적이면서도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진흥기업은 무조건적인 실적 위주의 경영은 지양하고 있다. 투명한 윤리 경영을 실시해 자율과 책임 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자기 존중과 신뢰가 있는 기업 문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임직원들의 정확한 판단력과 분석적인 업무 자세를 독려해 진흥기업만의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유리한 환경을 적극 개척하고자 안정적인 관급 공사의 수주는 물론 개발·SOC사업, BTL 등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주상복합 아파트 브랜드인 '마제스타워' 를 출범했으며, 고급 빌라의 대명사 격인 '아마란스' 를 통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진흥기업, 자연과 사람의 꿈 건설

진흥기업은 인간 존중의 기업 이념을 반영한 'W-park 나눔의 봉사단' 을 발족해 고이원, 양로원 등 지역사회에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사회단체에 대한 후원금 전달과 유니세프 후원, 건설 현장 인근 지역에 대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백건우 피아노 연주회, 정명화 첼로 리사이틀 후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진흥기업은 신건설 문화의 창달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꿈을 건설해나가고 있으며 사회 공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종합건설 기업으로 변화를 멈추지 않도록 노력해 '제1세대의 건설 명가' 라는 이름과 함께 '고객에게 존경받는 건설기업' 으로 거듭날 것이다. ㉞